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 A	KBS1	KBS2	MBC	KBC/SBS
6 00 굿모닝! 채널 A입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0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커피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태양의 신부>
9 0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 이야기 30 월화 미니시리즈 <컬러 오브 유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TV50년 기획 <여유만만>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40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너는 내 운명	00 여성공간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타임 20 세상의 모든 다큐 <너더, 생존을 위해 달려라>	00 수목미니시리즈 <나도 꽃>(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뉴스와 경제 30 보이는 특강	00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뉴스 15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00 SBS 12 뉴스 30 다큐로 만난 세계(재)
1 3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 이야기(재)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05 특집다큐멘터리 <연평도 그 날 이후> 55 2011 프록추크 K리그 대상 시상식	30 도전! 슈퍼대디
2 30 이수근의 바퀴를 드립니다(재)	00 KBS 뉴스 10 제16회 삼성화재 배 월드비더미스터즈 결승 2국	10 퀴즈쇼 사총사(재)	55 TV합성 꾸러기 석사교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현장 30 총티콤 월경 투 가오리
3 30 보이는 특강(재)		00 KBS 뉴스타임 05 유로링 동물탐정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50 MBC 뉴스	10 세계 고산지대를 가다
4 30 울지들의 반란 앙코르(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글로벌 진단 위기의 시대 제2편 <독마른 지구촌>	00 TV 유치원 30 여러 이야기	00 뽀빠이 아이즈아 30 마법천자문	00 안녕 지두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40 뉴스네트워크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아름다운 콘서트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총티콤 월경 투 가오리
6 00 다섯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통	10 6시 뉴스메가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7 00 생방송 연예 인사이드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45 스타 인생극장 <자우림>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사저널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내달 꽃님이>
8 00 너는 내 운명 30 뉴스830	25 일일연속극 <당신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1대 100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기자가 나눈 세상 현장 21
9 15 스포츠 투나잇 20 월화미니시리즈 <컬러 오브 유먼>	00 KBS 뉴스 9	55 월화드라마 <브레인>	55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빛과 그림자>	55 월화드라마 <천일의 약속>
10 30 개그시대	00 시사기획 KBS 10 50 아름다운 사람들			
11 4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 이야기	00 KBS 뉴스 라인 40 세상의 이야기	05 김승우의 승승장구	15 PD수첩 <38살 홍씨의 죽음>	15 강심장
12 10 한밤의 뉴스 20 주말특대기획드라마 <천상의 화원 공백(재)>	35 KBS 네트워크 기획 <황토연가>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50년 앙코르 쇼 비디오 자키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토론	40 나이트 라인

# KBS 단막극 'TV문학관' 2년만에 깜짝 부활

내일부터 광명 소년·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엄지네 순차 방영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선보이는 KBS 'TV문학관'이 3편의 작품과 함께 2년 만에 깜짝 부활한다.

KBS는 'TV문학관'이라는 타이틀로 7~9일 밤 11시20분에 '광명 소년' (극본 이란·이주연, 연출 이민홍), '사랑방 손님' (극본 박지숙, 연출 한준서), '엄지네' (극본 이덕재·성주현, 연출 홍성덕) 등 3편을 차례로 방송한다고 밝혔다.

'TV문학관'은 2009년 12월30일 '사람의 아들'을 방송한 이후 지난 2년간 제작사 사정으로 방영이 중단됐다.

KBS는 이번 'TV문학관'의 부활이 자사의 의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단막지원프로

그램'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 3편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편당 1억9300만 원을 지원받고 미술비 등 KBS 자체 제작비 1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 편당 총 3억5200만 원으로 제작한다.

이는 기존 TV 단막극의 평균 제작비 1억 5천만 원보다 배 이상 큰 금액이다.

KBS는 "'TV문학관'이라는 브랜드는 오랜 기간 공들여 제작하는 명품 단막극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관적인 단막극보다는 제작비를 많이 투입해 왔다"고 전했다.

김동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광명소년'에는 최근 영화 '창



지난 2006년 방영된 'TV문학관' '나쁜소설'의 한 장면.

피해'로 주목받은 신예 김꽃비와 양진우, 전소민 등이 출연한다.

또 주요섭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사랑방 손님'에는 이준수가 출연하며, 이덕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엄지네'에서는 최지나, 정원종 등이 연기한다.

KBS는 "자극적인 소재와 갈등 위주가 아닌, 좋은 드라마만이 줄 수 있는 감동과 성찰을 시청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야기엔터테인먼트 '겨울이야기' 음반 발매

박시후·박시연·남규리 등 참여  
음원 수익의 불우이웃 돕기 기부

탤런트 박시후와 박시연, 남규리 등이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이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한 데 불응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박시후, 박시연, 조여정, 남규리, 조달환, 오타니료혜이, 최성준, 정우진 등 소속 배우 8명이 합

계 부른 노래 '겨울이야기'를 5일 인터넷을 통해 발매했다고 밝혔다.

하얀 겨울을 배경으로 사랑 고백에 대한 설렘과 두근거림을 경쾌한 멜로디에 담은 '겨울이야기'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음원 수익의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된다.

소속사는 "가수가 아닌 배우들이 참여한 노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화려한 기교가 느껴지지 않지만 제



능기부에 참여한 배우들의 마음이 전달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1월 12일 乙未)

子 36년생 소중할 물건을 빌려 오느라... 48년생 울고 싶은 일 생... 60년생 힘을 보태면 어려움이 구할 수 있다. 72년생 부분 기대감으로 인해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 84년생 지출을 경제적으로 이끌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3, 13	午 42년생 염려되는 일은 예초부터 철저히 차단하라. 54년생 문제가 있다는 평을 듣지 않도록 하라. 66년생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처리하라. 78년생 집착하게 될수록 의도적으로라도 초연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7, 63
丑 37년생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느니라. 49년생 만년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 61년생 실언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 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73년생 급등세를 타면서 호전되었다. 85년생 고만거리의 내용이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41, 58	未 43년생 능력에 맞는 대로 분배하면 될 것이다. 55년생 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 67년생 주된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분산될 수 있다. 79년생 가까운 이로 인한 손해수가 비친다. 행운의 숫자 : 20, 83
寅 38년생 미루다 보면 모두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50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라. 62년생 세태에 따라서 하지 말고 골곧게 살아라. 74년생 일이 잘차대로 진행되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88, 32	申 44년생 공신력 있는 수단으로 소동되어야 한다. 56년생 감정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아껴야겠다. 68년생 직접 행해야 이루어지느니라. 80년생 세간의 평을 골뎀이 속고해보면 의미심장함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73, 33
卯 39년생 체면 불구하려는 이가 나타난다. 51년생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제거함이 좋다. 63년생 절정에 이르렀을 때 완성도를 높이자. 75년생 책임감을 다하지 않으면 명예에 흠집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8, 53	酉 45년생 선천적인 습관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7년생 가급적 참여토록 하자. 69년생 일이 다 벌어진 뒤에 손을 쓸데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81년생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지만 깔끔한 마무리가 아쉽다. 행운의 숫자 : 48, 78
辰 40년생 회한하게도 극히 예외적인 일이 발생하겠다. 52년생 극성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64년생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 76년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8, 13	戌 46년생 과장하거나 과잉 반응을 보이면 곤란하다. 58년생 여러 가지 문서문이 한꺼번에 집중되었다. 70년생 대국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라. 82년생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80, 42
巳 41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을 때 복을 받느니라. 53년생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65년생 행복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이 가세한다. 77년생 초면인 사람과의 시비수를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31, 21	亥 47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59년생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급격히 빨리 개선하라. 71년생 대국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라. 83년생 많다됨할 일이 생기지만 일순간에 참으면 여러 날이 편안해진다. 행운의 숫자 : 14, 6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www.cafe.daum.net/sajo114 ☎010-9790-8237

###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격비둘기대회

준결승 2국 2보 (21~45)

黑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 독특한 발상

백이 좌상귀에서 손을 뺐으니 눈길은 좌상귀의 '가'의 곳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흑 21도 다음 25의 침입을 보는 농수 없이는 곳이다.

여전히 조영배 5단은 백 22, 24로 하변을 차지하며 수력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흑도 25로 우변을 쳐들어간 것은 당연한 곳이다. 백 26은 가장 간명할 수. 흑 29까지 넘어가게 해 집으로는 손해지만 선수를 뽑아 좌변 백 30으로 달려가 계속해서 수력을 낸다는 것이 조영배 5단의 일관된 작전이다. 그러나 백 26으로는 먼저 백 '나'로 두어 흑 '다'를 강요한 다음 두는 것이 조금은 이득이었다. 백 36이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면서도 적극적인 발상이었다. 이때 정장호 5단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흑 37로 버리고 말았는데 이 수는 기세에 눌린 느낌이다. 이 수로는 일단 '참고도'의 흑 1로 두고 3으로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싶다. 흑 45로 어깨를 짚어간 것이 절호점으로 일찌감치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유 니혼고
<h3>병구완/병구환</h3> <p>어머니 병구완에 온 가족이 힘을 보탤다. 아버지 병구환에 온 가족이 힘을 보탤다.</p> <p>병이 들면 아픈 사람 못지않게 옆에서 병시중 들고 간호하는 가족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나봅니다.</p> <p>병을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든다고 할 때 '병구완한다.' 또는 '병구환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p> <p>'병구완'이 맞습니다.</p> <p>원래 '병구완'에서 '구완'은 '구할 구(救)'자에 '근심 환(患)'자를 쓰는 '구환'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환'이라는 말로 변하게 돼서 지금은 '병구완'이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단어의 뜻을 헤아릴 때 한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관련해서 근심 환(患)을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구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구완'이라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p>	<h3>I was named after him</h3> <p>아버님 이름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p> <p>A : How come you have the same first name as your father? B : I was named after him. A : What about your sister. B : She was named after my grandmother.</p> <p>A : 자네 부친하고 이름이 왜 같은가? B : 아버지 이름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A : 자네 여동생은 어떤가? B : 제 여동생은 할아버님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p> <p>* How come do you have the same first name as your father? (×) = How come you have the same first name as your father? = Why do you have the same first name as your father?</p>	<h3>眼不見心不煩</h3> <p>모르는 게 약</p> <p>'눈(眼)에 보이지 않으면(不見) 마음(心)이 편하다(不煩) yǎn bú jiàn xīn bù fán. 우리말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도 되겠네요.</p> <p>사람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지요.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살다보면 참 많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저런 연결고리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것인데 말이죠.</p>	<h3>準備性がありますね。</h3> <p>준비성이 있군요</p> <p>A : この頃 急に寒くなりましたね。風邪大丈夫ですか。 B : 私は風邪を引かないように、厚いセーターを着ています。 A : そうですね。準備性がありますね。転ばぬ先の杖ですね。 B : 高校の時はいつも風邪を引いて苦労していましたから。</p> <p>A : 요즘 갑자기 추워졌군요. 감기 괜찮아요. B : 나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A : 그렇습니다. 준비성이 있군요. 유비무환이군요. B : 고등학교 때는 언제나 감기에 걸려서 고생했었어요.</p> <p>[문법정리] ◎ 동사의 ない형(부정형) + ように (~하지 않도록) ▶ 忘れないように、メモを取っています。 = 잊지 않도록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 風邪を引かないように、厚いセーターを着ています。 = 감기 걸리지 않도록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p>
<p>&lt;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gt;</p>	<p>&lt;동아 외국어학원&gt; www.donga.tv ☎ 222-6253</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gt; http://www.kjasuka.co.kr ☎ 232-1503</p>